

DS단석은 1965년 한주일 선대 회장이 설립한 '노벨화학공업사'를 모태로 한다. 창업주 한주일 선대 회장은 1923년 함경남도 흥남에서 태어나 1·4후퇴 때 혈혈단신으로 피난해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화학 분야에 뜻을 두었다. 대한철광 광업연구소 소장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나, 한국 화학소재의 자립을 이루겠다는 '사업보국'의 사명감으로 1965년 7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노벨화학공업사'를 설립하였다. 창업 초기 시약 사업 실패와 홍수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산화동, 광명단, 리사지(Litharge)에 이르는 제품 개발로 사업 확장을 도모해 나갔다. 그리고 1974년 5월 경기도 군포시 당동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화학 제조기업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군포 이전 이후 1984년 8월 사명을 노벨산업으로 변경하고 법인 등록을 마쳤다. 법인 전환은 한주일 선대 회장의 창업이념인 '기업은 영원히 지속, 발전하면서 인류사회에 공헌하여야 한다'는 지론을 현실화하는 발걸음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성장 기회를 발굴하던 중 건설자재의 주요 첨가제인 PVC안정제에 주목하고 개발하게 된다. 당시 PVC 안정제 시장은 국내 건설경기 호황으로 경쟁업체들이 많았지만, 원재료인 리사지를 직접 생산하는 강점과 고객 맞춤형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갔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1989년에는 사명을 단석산업(丹石産業)으로 변경하였다. 초창기 사명은 한주일 선대 회장이 가장 존경하는 화학자이자 사업가인 노벨의 이름에서 영감을 받았었다. 그러나 20년 이상 기업을 일궈오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속 성장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선대 회장 본인의 아호인 단석(丹石)을 딴 사명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단석(丹石)은 지속가능한 평화로운 삶을 이끌어 준다는 뜻을 지닌 홍옥(Ruby)을 상징한다.

1995년에는 보다 현대화된 대량 생산기반과 연구시설 확보를 위해 시화공단으로 공장을 이전하였다. 그러나 성장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기업의 자금난과 제품 수요 급감이라는 큰 파도를 몰고 왔다. DS단석은 그간 쌓아온 금융권과의 신뢰와 전략적 자금 운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목표관리제도(MBO), 표준원가제도 등을 도입하며 경영혁신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IMF 외환위기라는 시련은 경영 체질 개선과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었고, PVC안정제 매출 상승에 힘입어 1999년 매출액은 약 5백억원에 이르게 되었다.

DS단석은 2000년대 중반부터 외형의 성장을 꾀하기 위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였다. 2007년에는 차량용 바이오디젤 국내 보급 확대에 따라 시화공장에 바이오디젤 생산공장을 선제적으로 준공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가속화됨에 따라 바이오디젤 사업도 탄력을 받았고, 2010년에는 매출액 2천억원을 돌파하였다.

2010년대에 들어 DS단석은 다시 한번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바이오디젤을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에너지 사업은 발전용 바이오중유 생산과 더불어 자체적인 폐오일 정제기술 개발, 바이오디젤 생산 거점인 평택 1·2공장을 추가 가동하며 외연을 확대해 나갔다.

2011년에는 또 다른 신사업의 한 축인 재생연 공장(군산1공장)을 준공하고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을 개시하였다. 군산1공장은 당시 연간 10만톤이라는 국내 최대 생산능력을 보유한 공장이었다. DS단석이 과거 리사지 등 납계 제품을 취급하면서 쌓은 역량이 있긴 하지만, 재생연은 경쟁업체 인력 영입 등이 없이 기존 인력을 중심으로 개척한 새로운 사업 영역이라는 점에서 도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기존 PVC안정제 사업은 지속적인 고객 맞춤형 제품 개발 노력과 함께 비납계 제품 출시로 시장을 리드하였고, 핵심 원료인 안정제 제품(LDH)을 개발 및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친환경 PVC안정제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했다. 이어 2013년 군산에 2공장을 구축하며 PVC안정제 생산 확대 등으로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업 다각화와 고도화를 위한 치열한 노력으로 2016년에는 매출액 5천억원에 이르렀다.

DS단석은 내수 시장의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한 수출 시장 개척에도 주력하였다. 현재 PVC안정제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의 권역 26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수출과 내수 비중이 6.5:3.5 수준으로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바이오디젤의 경우 미국, EU와 같은 해외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높기에 DS단석은 2011년부터 국내 최초로 유럽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ISCC-EU 인증, 미국 환경청(EPA)과 각 주의 수출자격을 등록하며 지속적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바이오디젤 수출을 위해서는 폐오일 등 원료 수급, 엄격한 인증/등록요건 확보, 시스템 유지 등이 중요한데, DS단석은 인증 시스템, 공급망 구축과 자체적인 투자를 통한 인프라 강화로 바이오에너지 사업을 국내 최고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위치로 올려놓았다.

이처럼 DS단석은 바이오에너지, 재생연, PVC안정제 사업을 바탕으로 2022년 매출액 1조원, 수출 3억불이라는 경영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바이오에너지와 재생연의 경우 폐자원(폐오일, 폐배터리)을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DS단석은 친환경·자원순환 전문기업이라는 정체성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23년 DS단석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사명을 '단석산업'에서 현재의 사명인 'DS단석'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창업주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이고 글로벌한 정체성을 담으려는 선택이었다. 또한 'DS단석'의 'DS'는 그 자체로 단석을 의미하면서 'Define Standard', 업의 표준을 제시해 나가겠다는 포부도 담겨 있다. 같은 해

DS단석은 기업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12월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며, 명실상부 산업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자원순환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더불어 2024년에는 군산1공장에 리튬이온배터리(LIB) 리사이클링 공장 준공, 평택1공장에 차세대 바이오연료인 수소화식물성오일(HVO) 전처리 공장 준공, 자회사 DS PCR 출범을 통한 플라스틱 리사이클 사업 확대에 이르는 기존 사업의 고도화 및 다각화 전략을 끊임없이 추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계열사 확대를 통한 원료 공급망 강화와 제품의 수직계열화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DS단석은 미래 전략을 군산에 집약하고 있다. 2025년 DS단석은 전북특별자치도와 1조 9백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에 'Net-Zero Complex'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DS단석이 보유하고 있는 7만평 부지에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신공장(군산3공장)은 수소화식물성오일(HVO), 지속가능항공유(SAF), 바이오납사 생산시설이 포함되며, 에너지 회수설비와 재활용 인프라까지 통합된 차세대 친환경 산업기지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군산1·2공장이 재생연과 PVC안정제 생산을 통해 DS단석의 성장 토대를 마련했다면, 군산3공장은 탄소중립을 향한 미래 전략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경영을 이끌고 있는 한승욱 회장은 2025년 7월 창립 60주년을 맞아, 2030 비전 "Global Top Tier 자원순환 에너지 기업"을 선포하며 DS단석의 미래 전략을 선명하게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 주력 사업과 더불어 지속가능항공유(SAF), 재생플라스틱(PCR), 에너지저장장치(ESS), 초소형원자로(MMR)에 이르는 신사업 추진으로 미래 자원순환 에너지 분야로 확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ESG와 Digital(AI), GWP(Great Work Place) 전략을 사업 분야에 접목하고, 비전 달성을 통해 인류와 환경에 기여하는 100년 기업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것이다.

[별첨 사진]



군포공장 전경사진



시화본사



재생연





군산1공장



군산2공장





2030 비전 선포식